

## 국가별 동향



### 영국

#### 계란을 깨니 노른자가 넷



영국 스카버리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제인 홈스는 최근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 계란 요리를 준비하던 중 깜짝 놀랐다. 계란을 깬는데, 노른자위가 네 개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놀란 식당 주인은 즉시 계란 생산 회사 측에 연락을 취했다. 현장으로 달려간 생산 업체 관계자는 “40년 동안 총 1,500만개의 계란을 생산해 팔았는데, 노른자위가 네 개나 들어있는 계란은 처음”이라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쌍알’로 불리는 노른자위가 두 개인 계란은 1,000알 당 하나 꼴로 발견되고 있다(출처 : The Sun).

#### 계란 속 병아리, 생명의 신비 담은 과학 사진

과학 잡지 New Scientist(뉴 사이언티스트)가

작년 한 해 촬영된 과학 사진 중 가장 놀라운 것들을 선정해 소개했다.



위 사진은 계란 속의 병아리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포르투갈 리스본 대학교의 연구진이 입체 현미경 촬영술을 이용, 촬영에 성공했다(출처 : New Scientist).



### 미국

#### 부리 다듬기, 레이저가 좋은 대안이 될 것

기존의 가금류의 부리 다듬기에 대해 레이저 사용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 연구팀에 따르면 레이저를 사용하면 동물 복지 측면에서도 좋고, 생산성 저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람들이 의학용으로 쓰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연구팀은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과 종전의 방식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해 계란 생산량과 스트레스 받는 정도를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두 그룹 사이에 수치상 차이

는 없었다. 그러나 레이저를 이용한 그룹이 털 공격적이고 털도 적게 빠졌다(출처 : World Poultry).



## 브라질

### 브라질 양계산업 큰 위기에 봉착

브라질 최대 규모의 가금류 생산업체인 Sadia SA의 주가가 지난 12월 32%나 떨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CFO Adriano Ferreira의 퇴진과 함께 4억 6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Sadia는 12곳의 육류 가공처리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브라질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의 회사로, 4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2007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보다 많은 손해를 보았다(출처 : World Poultry).

## E U

### 유럽인들 복제 동물 고기 먹지 않을 것

유럽위원회는 최근 동물 복제에 대한 논란에 대한 결정을 위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복제 동물 고기를 먹겠는가 하는 내용이

었다.

Eurobarometer 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6명에 달하는 58%가 ‘고기를 얻기 위한 동물 복제는 절대 안 된다’고 답했다.

Eurogroup for Animals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동물 복제 금지를 유럽위원회에 촉구했다. Eurogroup for Animals의 Sonja Van Tichelen 이사는 “소비자들은 자연적이고 건강한 음식을 원하지, 프랑켄슈타인 음식을 원하지 않는다.”며 “EU 내에서 이와 같은 식품을 생산하지도 말 것이며,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일도 없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출처 : World Poultry).



## 호 주

### 발 네개 닭 발견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주의 한 계육 처리장에서 발이 네 개인 닭이 발견 되었다. 처리공정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이상을 느끼고 발견했다.

그는 “평소와 같이 일을 하기 위해 닭의 다리를 잡아들었는데, 또 다른 발이 나의 얼굴을 할퀴었다”며 “6~7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발이 네 개인 닭은 처음 보았다. 이것은 마치 신화에 나오는 동물 같았다”고 말했다(출처 : World Poultry). **양계**